논어 8편 태백 7장 · 원문·풀이

曾子曰：「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仁以爲己任，不亦重乎；死而後已，不亦遠乎。」

독음 · 증자왈 사불가이불홍의 임중이도원 인이위기임 불역중호 사이후이 불역원호

쉬운 풀이(요약) · 선비는 마음이 넓고 굳세어야 한다. 인을 자기 임무로 삼고 죽을 때까지 행하므로 짐이 무겁고 길이 멀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曾 일찍 증 증 /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士 선비 사 사

不 아닐 불 / 可 옳을 가 가 / 以 써 이 이 / 弘 넓을 홍 홍

毅 굳셀 의 의 / 任 맡길 임 임 / 重 무거울 중 중 / 而 말이을 이

道 길 도 도 / 遠 멀 원 / 仁 어질 인 인 / 爲 할 위

己 자기 기 기 / 亦 또 역 / 乎 어조사 호 / 死 죽을 사 사

後 뒤 후 후 / 已 이미 이 이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